TOUR PROGRAM

제주포럼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분들에게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평화의 섬 제주가 지향하는 관용, 힐링, 공동체 평화를 주제로 제주도민이 함께하는 피스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기 프로그램은 모두 사전 예약으로 진행됩니다.

During the Jeju Forum you can enjoy Peace Tour Programs specially organized by the local people of Jeju. The themes of the programs include tolerance, healing and community, and peace, which are what Jeju, the Island of Peace, pursues.

※ Advance reservations will be required for the tour.

Course A

THU. JUNE 28 | 13:30~17:30

ICC 제주 ICC Jeju → 서귀포시 치유의 숲 Seogwipo Healing Forest → 호텔 Hotel

치유의 평화 Peace of Healing

편백나무 숲과 삼나무 숲을 비롯해 난대림, 온대림, 침엽수림이 골고루 분포된 숲길을 걸으며, 전문적인 산림치유지도사(숲 테라피스트)가 직접 진행하는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역사, 옛 제주 사람들의 생활상 그리고 숲길 이름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제주어를 엿볼 수 있습니다.

The healing forest located in Seogwipo is a natural, untouched piece of land that boasts of variety of beautiful trees and allows visitors a glimpse into what life on Jeju was like in the past. This course led by a professional forest therapist to help visitors heal and recharge their bodies and spirit.

Course B

THU. JUNE 28 | 13:30~17:30

호텔 Hotel → 제주 4·3평화공원 Jeju 4·3 Peace Park → 호텔 Hotel

제주의 평화 Peace of Jeju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극심한 인명 피해를 낸 제주 4·3사건. 제주 4·3평화공원의 전문 해설사와 함께 제주 4·3을 바로 알고, 긴박했던 피난생활과 당시 학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동굴을 돌아봅니다. 당시 제주도민의 처절한 삶을 기억하고 추념하며,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The Jeju April 3 (hearafter called '4·3') incident is one of the most tragic incidents next to the Korean War in terms of loss of lives. In Jeju 4·3 Peace Park, visitors look around the cave that reproduces the existing state at the time of recovery, reminding us of the situations of the strained refugees and the massacre. This course is to visit a memorial for the victims of the Jeju civilian massacre and to begin a new era of reconciliation and mutual prosperity based on human rights and peace.

Course C

FRI. JUNE 29 | 08:30~13:00

호텔 Hotel → 해녀박물관 Haenyeo Museum → 호텔 Hotel

공동체와 평화 Peace with Community

기계장치 없이 맨몸과 오로지 자신의 의지에 의한 호흡 조절로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을 해녀라고 합니다. 해녀들은 바다를 '바다밭'으로 보며, 이를 단순히 채취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꾸어 공존하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체득한 지혜를 세대에 걸쳐 전승해왔습니다. 자연과 상생하며 살아온 해녀 공동체 문화를 통해 진정한 공존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Haenyeo (women divers) are females whose job is to harvest seafood, while controlling brething without any appratus. Haenyeo realized that the sea is a subject to be tendered and preserved, instead of being mass harvested. The knowledge and wisdom they obtained has been passed down to futire generations. This course is to visit the Haenyeo Museum to explore the meaning of coexistence through the culture of Haenyeo community that has lived in harmony with nature.

Course D

FRI. JUNE 28 | 08:30~13:00

ICC 제주 ICC Jeju → 서귀포시 치유의 숲 Seogwipo Healing Forest → 호텔 Hotel

치유의 평화 Peace of Healing

편백나무 숲과 삼나무 숲을 비롯해 난대림, 온대림, 침엽수림이 골고루 분포된 숲길을 걸으며, 전문적인 산림치유지도사(숲 테라피스트)가 직접 진행하는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역사, 옛 제주 사람들의 생활상 그리고 숲길 이름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제주어를 엿볼 수 있습니다.

The healing forest located in Seogwipo is a natural, untouched piece of land that boasts of variety of beautiful trees and allows visitors a glimpse into what life on Jeju was like in the past. This course led by a professional forest therapist to help visitors heal and recharge their bodies and spirit.